

# 일찍 떠나는 '엘리버드 6월 휴가족' 는다

〈피크 피해 비수기에 떠나는 여행객〉

### 저렴한 경비에 한가하게 휴가 즐길 수 있어

### 여행·항공업계, 다양한 특가상품 판매 인기

회사원 최모(50)씨는 오는 6월 첫째 주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예년 같으면 7월 말이나 8월 초 피크에 갔겠지만 이번 달라졌다. 비수기에 여행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혔던 6월에 휴가를 떠나는 일명 '엘리버드 휴가족'이 늘어나는 등 여름휴가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21일 여행업계 등이 한국항공운송협회의 항공여행 실적에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6월 중

국내선 여객 연평균 여객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2005~2009년 5년간 6월 중 제주 등 국내선 여객 연평균 증가율 0.5%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7월은 각각 2.3%포인트와 0.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8월보다도 3.4%포인트 높은 증가폭이다. 또 같은 기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도착하는 6월 중 국제선 여객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7월, 8월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할랑'이 대체이고, 복잡한 시기를 피하고 보다 저렴하게 휴가를

즐거려는 합리적인 소비층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특가 상품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하나투어의 '가정의 달 특집 기획전' 상품은 완판된 상태이며 5·6월 중국 여행의 최적기를 겨냥한 하나투어 중국전세기 특가 상품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유립 10인의 할인 선착순 최대 50만원 할인' 상품도 잘 나가고 있다.

모두투어가 기획한 5월27일부터 6월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선착순 인원을 정해놓고 출발하는 '홍콩 특가 상품' 역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버드 휴가족'의 여파는 저비용항공사의 영업전략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 중심으로 6월 여행객을 대상으로한 특가 항공권을 내놓고 있다. 광주-제주, 무안-제주를 운항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5·6월 엘리버드 상품에 이어 7·8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1만7200원부터 구입할 수 있는 특가 항공권을 출시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 통상적으로 통하는 비수기에 짧은 휴가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해 국내나 단거리(저가항공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많아졌다"며 "특히 자유여행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2.81 (-16.73)

금리 (국고채 3년) 1.88%

▲ 코스닥 715.64 (+1.69)

▼ 환율 (USD) 1094.00원 (-2.00)

## SK텔레콤 'T 버스' 신안서 스마트폰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21~22일 이틀 동안 이동형 대리점 'T 버스'를 신안군 조도에 보내 스마트폰 교육과 A/S 및 상담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T 버스'를 통해 제공하던 교육과 상담 서비스 외에 네 번째 뜻 깊은 행사를 조도에 열어 고객 서비스 및 수리를 제공하고, 통신 운영 지역 점검을 통한 통화 품질 제고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SK텔레콤 서부지역 구성원들이 광주 사

회복지공동모임과 함께 모은 '주민 사랑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이번 조도 방문은 2월 압태도 방문을 시작으로 지도, 고흥에 이어 네 번째다.

임장춘 서부마케팅본부장은 "올해 외에도 삼성·LG 등 가전 업체와 협력해 가전 제품 상담 및 수리를 제공하고, 통신 운영 지역 점검을 통한 통화 품질 제고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SK텔레콤 서부지역 구성원들이 광주 사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지난 20일 중국에서 개막한 세계 3대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 2015'에서 효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을 처음으로 전시했다. 효성 폴리케톤 전시부스 전경. <효성 제공>

##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토론회

### K-water, 광주 DJ센터서

K-water(사장 최계운)는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윤병만)와 함께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물관리(IWRM)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철 호남대 교수, 현고 주암호 수질보전협의회 이사장, 김낙국 광주MBC 취재부장, 김태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등 물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언론인,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산강·섬진강 유역간 남는 물을 나누고, 비상시 상호 연계대처가 가능한 주암댐-장흥댐-동북댐간 수원연계와 하류의 수질생태 회복과 홍수조절을 위한 보강강댐 및 섬진강댐 운영 합리화 등 통합물관리를 통한 양 유역간 상생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에 교체용 타이어 공급

### 다음달부터 4종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6월부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서비스센터에 교체용(RE) 타이어를 공급한다.

금호타이어는 2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조인식을 갖고, 교체용 타이어 공급과 관련해 업무를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프리미엄 제품인 엑스타 LE S-SPORT, 엑스타 PS91, 마제스티 솔루스, 크루젠 (SUV용) 등 4종을 공급하게 됐다.

이들 제품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가 국내에 출시한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7년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메르세데스-벤츠에 OE(신차용)공급을 시작했으며 독일에서 판매되는 스프린터와 B-클래스, G-클래스 등 다임러의 일부 상용차와 승용차 모델에 장착돼 이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김상엽 금호타이어 RE 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제휴는 수입차에 대한 국산 타이어 공급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대의 고품질 타이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상장법인 유가증권 '웃고' 코스닥 '울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법인의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1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12월결산법인 2015 사업연도 1분기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4개사의 올해 1분기 영업 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대상기업 14사중 광주신세계, 금호타이어, 대우신소재, 부국철강, 화천기공, 금호산업, 동아에스텍, DSR제강, 보해

양조, 조선내화,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등 12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반면, 대우에이텍, 한화화인케미칼 등 2개사가 적자를 보였다.

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0개사를 2015사업연도 1분기 영업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대상기업 10개사 중 서산, 서양기계공업, 코아크로스, 남화도건, 와이엔텍, 파루, 행남지기, KPX생명과학 등 8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낸 반면, 오이솔루션, 코아크로스 등 2개사가 적자를 보였다.

김대성기자 bigkim@

## 효성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 글로벌 시장 첫 선

###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2015'에 전시

### 조현상 부사장 "플라스틱 시장 새 패러다임 만들것"

효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효성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3대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Chinaplas) 2015'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폴리케톤'을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현상 화학PG CMO 겸 전략본부 부사장은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내구성·내화학성 등이 탁월한 차세대 소재 폴리케톤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될 우리 폴리케톤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려 글로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폴리케톤은 효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WPM(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독자기술을 이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폴리케톤은 올레핀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다. 나일론과 비교해 충격강도는 2.3배 이상, 내화학성은 30% 이상 우수하며, 내마모성 또한 폴리아세탈(POM) 대비 14배 이상어서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신소재보다도 화학적 특

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플라스틱 시장에 신소재 폴리케톤이 탄생했음을 적극 홍보하고 폴리케톤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기존 고객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거래선을 개척하는 등 판로 개척에도 힘을 기울인다. 효성은 지난 2012년 울산에 연산 1000t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폴리케톤을 생산 중이며 연산 5만t 규모의 폴리케톤 상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집중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마스코트 제품 및 용기타이퍼 취급권을 취득한 업체에서 오직하고 있습니다. (타이퍼, 변이형, 전지타이퍼 등 타사제품의 지원을 받은 모든 용기타이퍼)

광주·전남 기능장1호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대산프리모기발